

마가복음에 나타난 문학 기법들의 복합적 사용

- 구조 분석과 메시지 전달의 의의 -

김선욱*

1. 서론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 다양한 문학 기법들을 사용하여 예수 이야기를 다채롭게 묘사한다. 비록 마가의 문체는 투박하고 문장은 단조롭기는 하지만,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문학 기법들은 매우 뛰어나다. 또한 예수의 말씀보다 행동에 초점을 맞춰 서술하는 마가의 기술 방식은 내러티브를 생동감 있고 역동적으로 전개시킨다.¹⁾ 마가의 문학 기법에는 ‘반복’(repetition), ‘핵심어’(또는 ‘연결어’, key words [verbal threads]), ‘양식 장면’(type-scenes), ‘포괄’(inclusio), ‘교차대칭’(chiasm), ‘평행’(parallelism), ‘전조와 반향’(또는 ‘내다보기와 돌아보기’; foreshadowing and echoing [retrospection]), ‘삽입’(또는 ‘샌드위치 기법’, intercalation [sandwich technique]), ‘틀’(framing), ‘두 단계(또는 세 단계) 진보’(two-step [or three-step] progressions), ‘아이러니’(irony), ‘서사적 놀람’(narrative surprising), ‘미러링’(‘거울 용법’, mirroring) 등이 있다.²⁾

* 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 조교수, 신약학

1) 필자는 본 논문에서 유사하지만 다소 성격이 다른 두 용어, 이야기(story)와 내러티브(narrative)를 구분하여 사용할 것이다. 비록 이 둘이 완전히 구분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이야기는 ‘내용’(contents)을, 내러티브는 ‘흐름’(flow)을 강조할 때 각각 사용될 것이다.

2) David Rhoads, Joanna Dewey, and Donald Michie, *Mark as Story: An Introduction*

마가는 이러한 문학 기법들 중에 반복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실제로 마가복음에 나오는 대부분의 문학 기법들은 용어를 달리하지만 반복이라는 기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내러티브는 선적(linear) 흐름으로 이루어졌다고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반복 패턴으로 구성되었다.³⁾ 특별히 예수의 갈릴리 사역(막 1:1-8:21)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의 여정(8:22-10:52)에서는 반복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예루살렘 사역(11:1-16:8)은 선적 구조를 보여준다. 왜냐하면 마가는 예루살렘에서 행해진 예수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행적을 요일별로 차례대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유월절을 중심으로 예수의 죽음과 관련된 일주일 동안의 일련의 사건들은 온전하게 보존되어 전승되었고, 마가는 이 전승을 자신의 복음서에서 충실하게 반영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예루살렘 사역 또한 반복 패턴이 발견되는데, 이는 전체가 아닌 각각의 이야기들이 일종의 변형된 형태의 반복 패턴을 취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마가의 다양한 문학 기법들 가운데 핵심이 되는 반복의 패턴을 알아보고, 여러 종류의 변형된 반복 패턴들이 어떤 방식으로 복합적으로

to the Narrative of a Gospel (2nd ed.;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1999), 47-62; Elizabeth Struthers Malbon, "Narrative Criticism: How Does the Story Mean?" in *Mark & Method: New Approaches in Biblical Studies* (ed. Janice Capel Anderson and Stephen D. Moor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2), 39-42; Mark Allan Powell, *What Is Narrative Criticism?* (Minneapolis: Fortress, 1990), 32-34; Ernest Best, "Mark's Narrative Technique", *JSNT* 37 (1989): 43-58; 마가의 문학 기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Dean B. Deppe, *The Theological Intentions of Mark's Literary Devices: Markan Intercalations, Frames, Allusionary Repetitions, Narrative Surprises, and Three Types of Mirroring* (Eugene: Wipf and Stock, 2015)을 보라. 말본(Elizabeth Struthers Malbon)은 '병렬'(juxtaposition)이라는 관점에서 마가의 주요한 '수사적 장치'(rhetorical devices)를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제시한다: 반복, 삽입, 틀, 전조와 반향, 상징, 아이러니. Malbon, "Narrative Criticism: How Does the Story Mean?", 39-42. 참고. 문학 기법과 내러티브 패턴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David R. Bauer, *The Structure of Matthew's Gospel: A Study in Literary Design* (JSNTSup 31; Sheffield: Almond Press, 1988), 13-19를 보라

3) Rhoads et al., *Mark as Story*, 47.

사용되어 메시지를 전달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일반적으로 문학 기법들은 각기 개별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이는 어떤 이야기나 단락에 대해 하나의 문학 기법만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경향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큰 단락 안에서는 문학 기법들이 하나가 아닌 둘 이상의 다양한 기법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동시에 상호 작용하면서 내러티브를 구성한다. 따라서 문학 기법들이 큰 단락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상호 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그 단락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특별히 다양한 형태의 문학 기법들이 동시에 사용되는 마가복음의 내러티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구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개별적인 문학 기법의 사용 방법의 이해를 넘어서, 단락 안에서 여러 종류의 문학 기법들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상호 작용하면서 주제를 전달하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마가복음의 문학적 토대를 이루는 반복 기법과 그것의 변형된 형태들의 문학적 기법들을 소개할 것이다. 다음으로 예수의 갈릴리 후기 사역(4:35-8:21)의 단락을 예로 들어, 다양한 문학 기법들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사용되는지를 살펴보겠다. 이를 통해 복합적으로 사용된 문학 기법들이 어떻게 단락의 구조를 형성하고 상호 작용을 하여 중심 주제를 전달하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2. 문학 기법으로서의 반복의 의미와 기능

마가는 다양한 종류의 문학 기법들을 통해 그의 복음서를 구성하고 메시지를 전달한다. 서두에서 언급한 여러 종류의 문학 기법들 중에 마가의 핵심 기법은 반복이다. 그리고 마가는 반복이라는 문학 기법을 토대로 마가복음의 내러티브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한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반복은 단어, 문장, 사건 등이 단순히 되풀이되는 반복의 개념을 넘어선다. 반복은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풍성하게 만든다. 따라서

필자가 반복에 대해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알려진 반복의 개념뿐만 아니라 반복의 변형된 형태로서의 문학 기법에 나타난 특성도 포함하여 말하고자 한다. 본 논의에서 필자는 문학적 차원에서 반복이 어떤 의미와 특성을 가지며, 무슨 기능과 효과를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레서귀(James L. Resseguie)에 따르면, 반복이란 “단어, 구, 주제, 패턴, 상황, 행동” 등을 강조하기 위해 되풀이하는 ‘양식(문체) 장치’(stylistic device)를 의미한다.⁴⁾ 반복은 이야기 내의 진술이나 모티프를 다시 언급함으로써 그것들을 강화하고 명확하게 만든다.⁵⁾ 하지만 반복은 단순히 동일한 문장이나 내용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내러티브 안에서 이루어지는 반복은 변화(variation)를 수반한다. 즉, 반복은 유사성뿐만 아니라 차이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메시지를 더욱 분명하게 전달한다.⁶⁾ 반복은 유사한 상황 안에서 재현되지만 동시에 차이점을 발생시키면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킨다. 더 나아가 반복은 내러티브의 구조를 형성하기도 한다.⁷⁾ 반복은 단순히 단어, 문장, 모티프, 유사한 에피소드 등이 되풀이되는 차원을 넘어서 이것들을 중심으로 내러티브의 구조를 이루는 틀(frame)을 조직하고, 중심 주제를 담은 하나의 단락을 만들어 낸다.

반복은 내러티브에서 다양한 문학적 기능을 하며, 그에 따른 효과를 발생시킨다. 첫째, 반복은 강조의 기능을 한다. 강조는 반복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메시지와 주제는 반복을 통해 강조된다. 그리고 반복을 통한 강조는 이야기의 명확한 이해를 돕는 동시에 반복되어 나오는 내용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⁸⁾ 세 번의 수난 예고(8:31; 9:31; 10:33-34)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반복은 망각을 막아주는 기능을 한다.⁹⁾ 반복에서 강조의 기능이

4) James L. Resseguie, *Narrative Criticism of the New Testament: An Introduction*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5), 42.

5) Resseguie, *Narrative Criticism*, 42.

6) Joel B. Williams, *Other Followers of Jesus: Minor Characters as Major Figures in Mark's Gospel* (JSNTSup 102; Sheffield: JSOT Press, 1994), 52.

7) Resseguie, *Narrative Criticism*, 42.

8) Williams, *Other Followers of Jesus*, 52.

적극적 측면이라면, 망각을 막아주는 기능은 소극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마가복음에는 두 번의 급식 이적(6:31-44; 8:1-10)이 반복적으로 나온다. 그리고 예수는 떡과 관련하여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교훈을 말할 때, 그 의미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모르는 제자들에게 두 번의 급식 이적을 상기시킨다(8:13-21). 반복은 앞선 사건들에 대한 망각을 막아주는 동시에 강조의 기능처럼 그 사건들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셋째, 반복은 내러티브의 플롯을 전개시키고, 새롭게 발전시키는 기능을 한다.¹⁰⁾ 반복이 플롯의 전개와 발전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유는 변화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복은 유사성 안에 차이점을 발생시킴으로써 내러티브를 더욱 생동감 있게 전개시키고 새로운 발전을 이루어낸다. 반복되는 이야기들 사이에는 ‘반향 효과’(echo effect)가 나타난다.¹¹⁾ 그리고 후속 이야기는 유사한 앞선 이야기를 회상하게 함으로써 두 이야기 사이에는 ‘공명’(resonance)이 발생한다. 이러한 공명은 유사성을 통해 상호 작용하지만 동시에 차이점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고,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만든다.¹²⁾ 또한 반복은 유사성을 통해 패턴을 만들어 내고, 이 패턴은 차이를 통해 새로운 방향으로 내러티브를 발전시킨다.¹³⁾

넷째, 반복은 내러티브의 전개 과정에서 기대를 가지게 하는 기능을 한다.¹⁴⁾ 반복은 하나의 패턴을 만들고, 이 패턴은 다음에 벌어질 사건을 기대하게 만든다. 하지만 패턴은 서로 다른 성격의 두 가지 결과를 낳는다. 하나는 패턴의 항상성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상하게 만들고, 다른 하나는

9) Robert C. Tannehill, *The Narrative Unity of Luke-Acts: A Literary Interpretation. II. The Acts of the Apostles* (vol. 2; Philadelphia: Fortress, 1990), 74.

10) 참고. Robert Alter,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rev. ed.; New York: Basic Books, 2011), 97-98.

11) Tannehill, *The Acts of the Apostles*, 49-50; 참고. idem, *The Narrative Unity of Luke-Acts: A Literary Interpretation.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vol. 1; Philadelphia: Fortress, 1986), 105, 170-71.

12) Tannehill, *The Acts of the Apostles*, 49-50.

13) 참조. Williams, *Other Followers of Jesus*, 53.

14) Williams, *Other Followers of Jesus*, 54; Tannehill, *The Acts of the Apostles*, 75-76.

패턴의 파괴—또는 기대했던 예상의 전복—를 통해 예상치 못한 과격적인 결과를 낳게 한다. 전자는 기대에 대한 성취를 가져오고, 후자는 예상 밖의 놀람을 불러일으킨다.¹⁵⁾ 하나의 이야기에서 발생된 기대는 반복의 패턴 가운데 가까운 문맥에서부터 먼 단락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친다.¹⁶⁾ 반복으로부터 생겨난 패턴은 독자로 하여금 기대를 가지게 하며, 내러티브를 이끌어가는 동력을 만들어낸다.

다섯째, 반복은 내러티브의 구조를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 특별히 마가복음의 내러티브는 선적 흐름보다 반복 패턴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반복은 마가복음의 구조적 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예를 들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은 반복된 두 개의 맹인 치유 사역(8:22-26; 10:46-52)을 통해 시작과 끝을 이루며 단락을 형성한다. 그리고 그 안에 반복되어 나오는 세 번의 수난 예고(8:31; 9:31; 10:33-34)는 단락의 뼈대를 이룬다. 또한 마가는 단락 내에서 이루어지는 반복을 넘어서 단락과 단락 간의 평행을 이루는 반복 형태를 통해 구조를 만들기도 한다(예. ‘바다 사건’에서 시작하여 ‘광야 사건’으로 끝나는 단락이 틀을 형성하여 두 번 반복되어 나오고, 두 단락 간의 내용이 평행을 이룬다: 4:35-6:44; 6:45-8:10).¹⁷⁾

여섯째, 반복은 내러티브에 통일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¹⁸⁾ 마가복음에는 많은 사건과 말씀이 들어있고, 이것들은 다양한 이야기와 교훈을 제시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다. 마가는 예수를 그의 복음서 시작부터 하나님의 아들(1:1)로 제시하고 있고, 내러티브 곳곳에서 사건들과 말씀들을 통해 드러내고 있으며(3:11; 5:7), 마지막 십자가에서

15) 이러한 예상 밖의 놀람은 문학 기법의 하나로 ‘서사적 놀람’이란 용어로 표현된다. 마가의 ‘서사적 놀람’에 대해서는 Deppe, *The Theological Intentions of Mark's Literary Devices*, 256-306을 참조하라.

16) Tannehill, *The Acts of the Apostles*, 75; Janice Capel Anderson, “Double and Triple Stories, the Implied Reader, and Dedundancy in Matthew”, *Semeia* 31 (1985), 83.

17) 참고. 반복 기법과 관련하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의 평행에 대해서는 Tannehill, *The Acts of the Apostles*, 50-51을 보라.

18) Tannehill, *The Acts of the Apostles*, 76.

백부장의 입(15:39)을 통해 반복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반복은 유사한 상황 가운데 변화를 주고 차이를 발생시키면서 플롯을 전개하고 구조를 형성하지만, 궁극적으로 내러티브의 통일성을 유지시켜준다.

3. 반복의 변형된 형태의 문학 기법들

마가복음에는 다양한 문학 기법들이 나오며, 여기에 제각기 명칭들이 붙여져 있다. 그리고 다수의 문학 기법들은 이들이 가진 고유의 특성에 따라 다시 몇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필자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문학 기법들 중에 반복의 특성을 가진 문학 기법들을 찾아내고, 이들을 하나의 범주로 이해하며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학 기법들을 반복의 변형된 형태로 간주하고, 이들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사용되어 내러티브를 구성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는 반복의 특성을 가진 문학 기법들, 즉 반복의 변형된 형태로서의 문학 기법들에 대해 알아보겠다.

필자는 *Jesus and the Missional Movement in Galilee: Markan Spatial Presentation and Its Hermeneutical Significance*에서 반복에 기초한 문학 기법들을 일곱 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 ‘핵심어’(또는 ‘연결어’), ‘삼입’(‘샌드위치 기법’), ‘틀’(‘포괄’ 포함), ‘양식 장면’, ‘전조와 반향’(또는 ‘내다보기와 돌아보기’), ‘교차대칭’, ‘두 단계(또는 세 단계) 진보’¹⁹⁾ 필자는 여기에 ‘평행’ 기법을 하나 더 첨가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예수의 갈릴리 후기 사역(4:35-8:21)을 사례 연구로 하여, 앞에 제시한 여덟 가지 문학 기법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합적으로 사용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핵심어’(또는 ‘연결어’) 기법이 있다. 이는 반복의 가장 기본적인

19) 이 책은 필자의 박사 학위 논문을 책으로 출판한 것이다. Sun Wook Kim, *Jesus and the Missional Movement in Galilee: Markan Spatial Presentation and Its Hermeneutical Significance* (Pickwick: Eugene, 2019), 37-40. 참고. Rhoads et al., *Mark as Story*, 47-61.

형태로 단어나 구를 반복하는 것이다.²⁰⁾ 핵심어의 반복은 개별 이야기나 하나의 단락의 핵심 주제를 드러내기도 하고, 모티프를 만들기도 하며, 하나의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와 연결시켜주는 고리 역할을 하기도 한다.²¹⁾ 마가복음 4:35-8:21에서 예수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장면(4:35-41)에서 시작해서 배에서 교훈을 주는 장면(8:13-21)으로 마친다. 배는 이 단락에 계속 등장하며, 예수의 사역의 배경과 모티프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²²⁾ 또한 이어지는 단락인 8:22-10:52에서 배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대신 ‘길’이 예수의 사역을 보여주는 중심 배경과 모티프의 기능을 한다. 예수는 세 번에 걸쳐 수난 예고(8:31; 9:31; 10:33-34)를 하는데, 이는 모두 길에서 했으며, 길은 제자도를 상징하게 된다.²³⁾ 여기서 핵심어는 반복을 통해 단락의 이야기들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모티프를 제공함으로써 단락 전체의 주제를 드러내며 강조한다.

둘째, ‘삽입’(또는 ‘샌드위치’) 기법이 있다. 이것은 마가가 즐겨 사용하는 대표적인 문학 기법으로, 마가는 이를 통해 이야기의 핵심 주제를 드러낸다. 이 문학 기법은 하나의 이야기 안에 다른 이야기를 삽입하는 형식(a, b, a')으로 형태상 샌드위치의 모양이어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도 불린다.²⁴⁾ 두 이야기 사이에는 단어, 상황, 행동 등에 공통된 요소들이 나오면서 반복의 성격을 가지며 하나의 주제를 강하게 드러낸다.²⁵⁾ 학자들마다 마가복음의

20) Rhoads et al., *Mark as Story*, 47-48.

21) Kim, *Jesus and the Missional Movement in Galilee*, 37; Joanna Dewey, *Markan Public Debate: Literary Technique, Concentric Structure, and Theology in Mark 2:1-3:6* (SBLDS 48; Chico: Scholars Press, 1980), 31-34; Rhoads et al., *Mark as Story*, 47-48.

22) 참고. 배 모티프와 관련하여 김선옥, “마가복음의 배 모티프의 문학적 기능과 신학적 의의—문학적 접근 방법을 통한 막 4:35-8:21 연구”, 『신약논단』 26 (2019): 35-78을 보라.

23) 참고. 길 모티프와 관련하여 김선옥, “마가복음의 길 모티프의 문학적 기능과 신학적 의의와 이사의 새 출애굽 반영”, 『신약연구』 18 (2019): 42-78을 보라.

24) Robert M. Fowler, *Let the Reader Understand: Reader-Response Criticism and the Gospel of Mark* (Minneapolis: Fortress, 1991), 143-44.

25) Deppe, *The Theological Intentions of Mark's Literary Devices*, 30-31; Robert H.

삽입 기법의 단락 개수를 달리 말하는데, 라이트(Geroge Al Wright, Jr.)는 12개,²⁶⁾ 에드워즈(James R. Edwards)는 9개를 제시한다.²⁷⁾ 본 논문과 관련된 삽입 기법의 단락은 두 곳에서 발견된다: 야이로의 딸과 혈루병 걸린 여인 이야기(5:21-43)와 제자 파송과 헤롯에 의한 세례 요한의 처형(6:7-30).

셋째, ‘틀’(‘포괄’ 포함) 기법이 있다. 이 문학 기법은 본 논문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틀 기법은 단락의 시작과 끝을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²⁸⁾ 이는 유사한 단어, 문장, 구, 내용, 혹은 모티프를 가진 두 개의 이야기를 내러티브 안에 위치시키고, 이들이 시작과 끝을 이루는 틀로 작용하여 하나의 단락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단락의 내용은 틀에서 제시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틀 기법의 대표적인 예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의 여정(8:22-10:52)의 시작과 끝에 위치하는 두 개의 맹인 치유 이야기(벳새다 맹인 [8:22-26]과 맹인 바다매오[10:46-52])에서 발견된다.²⁹⁾ ‘인클루지오’라고 불리는 ‘포괄’ 기법이 틀 기법에 포함되는가는 학자마다 견해의 차이를 보인다. 포괄 기법이 단지 동일한 단어나 구, 문장 등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³⁰⁾ 필자는 포괄 기법 또한 틀 기법 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동일한

Stein, “The Proper Methodology for Ascertaining a Markan Redaction History”, *NovT* 13 (1971): 30-31.

26) 라이트는 각각의 삽입 이야기들을 기록론(예수의 권위와 정체)과 제자도(제자들의 반응)로 설명한다. 그가 제시한 12개의 삽입 이야기들은 다음과 같다: 1:21-28; 2:1-12; 3:1-6; 3:20-35; 4:1-20; 5:21-43; 6:6-30; 11:12-21; 14:1-11; 14:53-72; 15:6-32; 15:40-16:8. George Al Wright, Jr., “Markan Intercalations: A Study in the Plot of the Gospel” (Ph.D. diss.,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1985), 222-24, 236-43.

27) 에드워즈가 제시한 9개의 삽입 이야기들은 다음과 같다: 3:20-35; 4:1-20; 5:21-43; 6:7-30; 11:12-21; 14:1-11; 14:17-31; 14:53-72; 15:40-16:8. James R. Edwards, *The Gospel According to Mark* (PNTC; Grand Rapids: Eerdmans, 2002), 11.

28) 참고. 틀 기법에 관해서는 Deppe, *The Theological Intentions of Mark's Literary Devices*, 95-98을 보라.

29) Kim, *Jesus and the Missional Movement in Galilee*, 38; Deppe, *The Theological Intentions of Mark's Literary Devices*, 95-96.

30) Dewey, *Markan Public Debate*, 31. 포괄(인클루지오) 기법의 전형적인 예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마 20:1-16)에서 발견된다. 이 비유의 교훈이 되는 마지막 구절인 20:16(“이와

단어, 구, 문장 등에서만 주제가 제시되어 단락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시작과 끝을 형성하고 하나의 주제를 담은 단락을 이룰 수 있다. 또한 필자는 틀 기법이 반드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시작과 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비록 시작과 끝이 서로 다른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패턴이 반복된다면 틀 기법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³¹⁾ 예를 들면, 갈릴리 후기 사역(4:35-8:21)은 바다-광야 패턴을 보여주는데, 바다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광야 이야기로 끝나는 패턴이 단락을 형성하고, 동일한 패턴의 단락이 한 번 더 반복해서 나온다. ‘바다를 잠잠케 함’(4:35-41; 바다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오천 명을 먹이심’(6:31-44; 광야 이야기)으로 끝나는 단락과 ‘바다 위를 걸으심’(6:45-52; 바다 이야기)에서 ‘사천 명을 먹이심’(8:1-10; 광야 이야기)으로 끝나는 단락. 비록 하나의 단락에서 시작과 끝이 다르더라도, 두 개의 단락에서 시작과 끝이 유사한 이야기로 평행을 이루며 반복된다면, 이 또한 단락 형성을 이루는 틀 기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넷째, ‘양식 장면’ 기법이 있다. 이 기법은 유사한 상황 가운데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변화를 수반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가리킨다.³²⁾ 그리고 반복 가운데 이루어지는 변화는 내러티브를 발전적으로 전개시키고, 모티프를 통해 주제를 더욱 분명하게 제시한다. 예를 들면, 두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오는 급식 이적(6:31-44; 8:1-10)은 광야에서 굶주린 무리에게 떡을 먹인다는 공통된 배경과 떡이라는 공통된 모티프를 가진 전형적인 ‘양식 장면’ 기법이다. 하지만 먹인 사람의 수(오천 명과 사천 명)와 남은 떡의 분량(열두 바구니와 일곱 광주리)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는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은 비유의 바로 앞 구절인 19:30(“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와 문장의 순서만 바뀐 채 동일한 문장으로 비유의 시작과 끝을 이루며 인클루지오를 형성한다.

31) Deppe 또한 이러한 평행을 통한 단락 형성을 틀 기법의 일종으로 본다. Deppe, *The Theological Intentions of Mark's Literary Devices*, 137-59를 보라.

32) Kim, *Jesus and the Missional Movement in Galilee*, 38. Alter는 양식 장면이 히브리 성서에 있어서 일종의 문학적 관습(literary convention)이라고 말하며, 양식 장면 기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Alter,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55-78.

전자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후자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사역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예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먹이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여준다.³³⁾

다섯째, ‘전조와 반향(또는 ‘내다보기와 돌아보기’) 기법이 있다. 이 기법은 전조와 반향으로 구성된 하나의 쌍으로 이루어져서 상호 작용을 하며 주제를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³⁴⁾ 전조(내다보기)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예상하게 만들고, 반향은 앞서 발생한 일을 회상하게 만든다. 이러한 과정은 이야기를 통일성 있게 만들고 공명을 일으킴으로써 주제를 더욱 부각시킨다. 예를 들면, 바다를 잠잠케 한 사건(4:35-41)에서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4:41)라는 말을 통해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가 밝혀지기를 기대하게 만든다. 바다를 배경으로 한 유사한 사건인 물 위를 걷는 사건(6:45-51)에서 예수는 자신을 유령으로 오해하는 제자들을 향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6:50)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힌다. 여기서 “내니”(ἐγώ εἰμι)는 신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예수는 여기서 자신의 정체를 밝힌다.³⁵⁾ 앞에 나온 바다 사건에서 제자들의 질문은 뒤에 나온 바다 사건에서 대답 되면서 전조와 반향의 효과를 일으키며, 예수의 신성에 대한 주제를 강화시킨다.

여섯째, ‘교차대칭’ 기법이 있다. 이 기법은 구약 성경에도 자주 나타나며,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기법이다. 단어, 구, 이야기들이 대칭을 이루며 구조를 형성하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형태들이 있다(예. a, b, c, b', a'; a, b, c, c', b', a' 등). 대표적인 예로 2:1-3:6의 다섯 가지 논쟁 이야기가 교차대칭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준다.³⁶⁾ 본 논문에서 다루게 될 단락들

33) Kim, *Jesus and the Missional Movement in Galilee*, 38-39. 참고. 자세한 논의는 김선욱, “마가복음의 배 모티프의 문학적 기능과 신학적 의의”, 35-78을 참조하라.

34) Rhoads et al., *Mark as Story*, 48-49.

35) 김선욱, “마가복음의 배 모티프의 문학적 기능과 신학적 의의”, 51-59; M. Eugene Boring, *Mark: A Commentary* (NTL;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2006), 190.

36) 다섯 가지 논쟁 이야기(2:1-3:6)의 교차대칭 구조는 다음과 같다. a—중풍병자를 고침

안에도 교차대칭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는 단락의 구조를 다룰 때 살펴볼 것이다.³⁷⁾

일곱째, ‘평행’ 기법이 있다. 평행과 교차대칭은 서로 간의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동일하지만 대응시키는 방식에서 차이가 나타난다.³⁸⁾ 평행은 대응되는 방식이 순차적으로 배열되는 반면에(a, b, c // a', b', c'), 교차대칭은 역순으로 나열된다(a, b, c, // c', b', a'). 또한 평행은 문장들이나 이야기들이 떨어진 상태로 대응될 수 있지만, 교차대칭은 이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대응되어야 한다. 필자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평행 기법 중에 기적들이 하나의 시리즈로 묶여서 평행으로 배열되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예를 들면, 갈릴리 후기 사역(4:35-8:21)에서 반복 형태를 가진 두 개의 단락들(4:35-6:44와 6:45-8:10) 안에 자연 이적, 치유 기적, 귀신 축출, 자연 이적이 평행을 이루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여덟째, ‘두 단계(또는 세 단계) 진보’ 기법이 있다. 이 기법은 유사한 구나 문장이나 이야기 등이 두 단계 또는 세 단계로 내려티브 안에서 반복적인 형태를 보이고 통일성 있게 진보를 이루면서 주제를 전달하고 강화시킨다.³⁹⁾ 필자는 이 기법 안에 모티프를 첨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는 이야기가 모티프를 중심으로 내려티브가 전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세 단계 진보 기법이 단락의 형태와 뼈대를 이루는 전형적인 예로, 예수의

(2:1-12); b-레위를 부름(2:13-17); c-금식에 대한 논쟁(2:18-22); b'-제자들의 이삭 자름(2:23-28); a': 손 마른 자를 고침(3:1-6); Joanna Dewey, “The Literacy Structure of the Controversy Stories in Mark 2:1-3:6”, *JBL* 92 (1973): 394-401. 참고. 박노식은 Dewey와는 다른 견해로 이 단락의 문학적 구성을 설명한다. 박노식, “마가복음의 문학적 구성과 모티프: 마가복음 1:1-3:6을 중심으로”, 『신약논단』 15 (2008), 913-922.

37) Kim, *Jesus and the Missional Movement in Galilee*, 149-53.

38) 참고. 김상훈, “요한의 구조 읽기: 요한식 병행법의 이해와 해석학적 의미” 『신약연구』 18 (2019), 442-48(특별히 423쪽 각주 4)를 참조하라. 김상훈은 두 개(또는 그 이상)가 하나의 쌍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병행법’(pairing way)이라고 정의하고, 이 쌍들이 순차적 형태를 가지면 ‘평행법’(parallelism), 역으로 나열되면 ‘교차법’(chiasm)이라고 말한다.

39) Kim, *Jesus and the Missional Movement in Galilee*, 40; Rhoads et al., *Mark as Story*, 49-51, 54-55.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의 여정(8:22-10:52) 가운데 세 번의 수난 예고(8:31; 9:31; 10:33-34)가 반복된 형태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수난 예고 또한 ‘길’ 모티프를 통해 구성되고 있다. 필자는 바다 위에서 일어난 세 번의 에피소드(4:35-41; 6:45-51; 8:13-21)와 급식 이적과 관련된 세 번의 에피소드(6:31-44; 8:1-10; 8:13-21)도 세 단계 진보 기법으로 본다.⁴⁰⁾ 전자는 배 모티프, 후자는 떡 모티프를 통해 세 단계 진보 기법이 통일성 있게 전개되고 주제가 전달된다. 또한 전자와 후자 모두 마지막 에피소드 단락이 8:13-21로 동일한데, 바다의 배 위에서 급식 이적과 관련된 떡 이야기를 함으로써 배 모티프와 떡 모티프가 합쳐져서 갈릴리 후기 사역 단락의 대단원의 결말을 이룬다.

4. 갈릴리 후기 사역(4:35-8:21)에 나오는 문학 기법들의 복합적 사용을 통한 구조 이해

지금까지 문학 기법의 측면에서 반복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반복에 기초한 변형된 형태의 다양한 문학 기법들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제는 이러한 문학 기법들이 어떤 방식으로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상호 작용하면서 단락의 구조를 형성하고 내러티브를 역동적으로 전개시키며 주제를 전달하는지를 알아보겠다. 이를 위해 필자는 예수의 갈릴리 후기 사역(4:35-8:21)의 큰 단락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문학 기법들의 복합적 사용을 통해 단락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살펴보겠다. 이 단락의 시작과 끝은 바다를 배경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배 모티프(또는 건너감 모티프⁴¹⁾)를 중심으로 틀 기법과 세 단계

40) Kim, *Jesus and the Missional Movement in Galilee*, 40.

41) 건너감 모티프와 관련해서는 Werner H. Kelber, *The Kingdom in Mark: A New Place and a New Time* (Philadelphia: Fortress, 1974), 48을 보라.

진보 기법이 복합적으로 사용되면서 단락의 구조를 이룬다. ‘배’(πλοῖον)는 마가복음에서 총 17번 나오지만,⁴²⁾ 배를 타고 본격적으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장면은 4:35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마지막 장면은 8:13-21에 나오며, 그 이후로는 바다와 배는 더이상 내러티브에서 등장하지 않는다.⁴³⁾ 예수의 갈릴리 후기 사역은 초기 사역(1:1-4:34)과는 달리 갈릴리 지역을 넘어서 이방인 지역으로의 확장 사역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바다를 건너 거사라인의 땅으로 가는 장면은 예수의 사역이 갈릴리를 넘어 확장됨을 알리는 신호가 되고, 마지막으로 바다를 건너는 장면은 이제 갈릴리에서 예수의 사역이 마무리됨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후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의 여정(8:22-10:52)이라는 새로운 장면이 펼쳐지는데, 여기서 길 모티프가 내러티브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틀 기법과 세 단계 진보 기법은 배 모티프와 관련하여 이해되고, 단락의 시작과 끝을 이룬다. 배 모티프는 예수의 선교 사역의 확장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며, 동시에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와 우주의 통치자로서의 능력, 그리고 제자들의 몰이해를 보여주는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한다.⁴⁴⁾ 갈릴리 후기 사역의 시작은 바다를 잠잠케 하는 사건(4:35-41)을 통해 예수가 우주의 통치자임을 제자들에게 보여준다. 이어서 예수가 바다 위를 걷는 사건(6:45-52)을 통해 자신의 신성을 드러낸다. 첫 번째 바다 사건에서 제자들은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말하고, 두 번째 바다 사건에서 제자들은 예수를 유령으로 착각한다. 이 모든 일은 바다를 배경으로 한 배에서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바다를 건널 때 예수는 배 위에서 제자들에게 떡에 대한 가르침을 주면서 자신이 행한 굶식 기적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나고 책망한다(8:13-21). 여기서 세 단계 진보 기법이 나타난다. 앞선 두 번의

42) 1:19, 20; 4:1b, 36a, 36b, 37a, 37b; 5:2, 18b, 21b; 6:32, 45b, 47a, 51, 54; 8:10b, 14. 참고 ‘작은 배’(πλοῖάριον)는 3:9에서 한 번 나온다. 김선옥, “마가복음의 배 모티프의 문학적 기능과 신학적 의의”, 50-59.

43) ‘바다’라는 헬라어 θάλασσα는 9:42, 11:23에도 나오지만, 이때는 교훈을 주기 위해 사용된 예일 뿐이지 물리적 바다로서의 배경은 아니다.

44) 김선옥, “마가복음의 배 모티프의 문학적 기능과 신학적 의의”, 50-51.

바다 사건은 기적이고 세 번째 바다 사건은 가르침에 관한 것이지만, 세 번째 바다 사건은 앞선 두 번의 바다 사건들에 대한 결말을 보여주는 교훈을 제시한다. 예수의 정체에 관한 기독교론과 제자들의 물이해에 대한 제자도가 두 번의 기적을 통해 나타났다면, 마지막 배에서의 가르침은 예수의 말씀을 통해 메시지가 분명히 전달되는 진보적 결말 단계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배 모티프를 포함한 틀 기법과 세 단계 기법의 복합적 사용은 예수의 갈릴리 후기 사역의 처음과 끝을 이루는 단락을 형성하게 만든다.

다음으로, 갈릴리 후기 사역의 내부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다. 여기에는 다양한 문학 기법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된다. 필자는 이 단락을 ‘순환 구조’(cyclic structure)로 이해한다.⁴⁵⁾ 단락의 시작과 끝이 바다라는 장소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단락의 내부 구조도 장소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바다와 광야에서 일어난 기적들을 토대로 ‘바다-광야’ 패턴을 형성하고, 이 패턴은 두 번에 걸친 순환 구조(4:31-6:44; 6:45-8:10)를 보이면서 내러티브를 전개한다. 여기에는 핵심어, 양식 장면, 평행, 그리고 틀 등의 문학 기법들이 사용된다. 바다를 잠잠케 하는 기적은 바다 위를 걷는 기적과 상황과 주제 면에서 일치하며 양식 장면 기법이 사용된다. 그리고 이들은 바다와 배라는 핵심어로 연결된다. 두 개의 바다 기적에서 풍랑으로 사나운 바다는 제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바다를 향한 예수의 명령과 바다 위를 걷는 행위는 제자들의 생명을 구원한다. 예수는 혼돈과 파멸의 세력인 바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우주적 통치자로 제시된다. 오천 명을 먹인 기적(6:31-44)과 사천 명을 먹인 기적(8:1-10)에서도 양식 장면 기법이 사용된다. 그리고 이 장면들은 광야와 떡이라는 핵심어로 연결되어 있다. 두 개의 급식 기적에서 예수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곤경에 처한 무리들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차고 넘치게 공급한다. 예수는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는 그의 백성을 보살피며 먹이는 목자 되신 주로 제시된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양식

45) 순환 패턴에 따른 구조 분석은 필자의 저서 Kim, *Jesus and the Missional Movement in Galilee*, 101-60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필자는 예수의 지리적 이동 경로를 추적하면서 바다-광야의 순환 패턴을 발견하고, 이에 따른 문학 기법으로 구조를 파악하였다.

장면을 순서에 따라 평행이 되도록 배치하면, 바다를 잠잠케 함과 오천 명을 먹인 기적이 하나의 단락(4:31-6:44)이 되고, 그에 대응하여 바다 위를 걸음과 사천 명을 먹인 기적이 또 하나의 단락(6:45-8:10)이 된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단락이 서로 평행을 이루며 대응된다. 이는 내려티브의 구조와 관련하여 틀 기법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8:11-21) 단락은 두 순환 구조의 모티브, 핵심 단어, 그리고 세 단계 기법이 절묘하게 결합되어 최종적으로 마무리된다. 예수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며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한다(8:11-12). 그리고 이어지는 단락에서 예수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면서 제자들과 떡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정체와 제자들의 무지를 드러낸다(8:13-21). 이 단락은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의 문학 기법이 복합적으로 사용된다. 예수와 제자들 사이의 대화는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배 모티프가 나오고, 배 모티프는 예수의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또한 대화의 내용은 광야를 배경으로 하는 떡 모티프가 나오고, 떡 모티프 또한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배와 떡이라는 핵심어는 두 개의 바다 기적과 두 개의 광야 기적에서 각각 나타나지만, 결론 단락에서는 두 단어가 동시에 나온다. 핵심어 기법은 앞에 나온 바다와 광야 기적들을 모두 연결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한다. 세 단계 기법은 두 개의 바다 기적과 두 개의 광야 기적에서 각각 두 번의 단계로 진행되다가 이 단락에서 통합되어 세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된다. 비록 이 단락이 대화와 가르침이란 측면에서 앞서 나온 기적들과는 성격상 차이를 보이지만, 배경과 가르침에 있어서 바다와 광야 기적들을 상기시킨다. 즉, 바다를 배경으로 광야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언급함으로써 세 번째 단계의 진행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문학 기법들의 복합적 사용에 기초해서 예수의 갈릴리 후기 사역의 기본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⁴⁶⁾

46) Kim, *Jesus and the Missional Movement in Galilee*, 127. 평행 단락 연구와 관련하여, 두 개의 광야 기적을 중심으로 사건을 나열하면서 평행을 제시하는 견해들이 있다. 레인(William Lane)은 광야 사건을 시작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끝맺는 두 개의 평행 단락

	바다 기적		광야 기적		결론
첫 번째 순환 (4:34-6:44)	바다를 잠잠케 함 (4:35-41)	→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임 심(6:30-44)		배(바다) 위에서 떡 (광야)에 대한 이야기 (8:13-21)
두 번째 순환 (6:45-8:10)	바다 위를 걸음 (6:45-51)	→	광야에서 4천 명을 먹임 심(8:1-10)		

두 번에 걸친 바다 기적과 광야 기적 사이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온다. 이 사건들에서도 반복에 기초한 다양한 문학 기법들이 나오고 일정한 패턴이 발견된다. 먼저 기적을 중심으로 두 개의 순환 단락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구조를 이루는지를 살펴보겠다. 갈릴리 후기 사역은 소위 ‘기적 모음집’이라고 불린다.⁴⁷⁾ 여기에는 아홉 개의 기적들이 나오지만, 필자는 삽입 기법이 사용된 두 개의 기적들(야이로의 딸을 고침[5:21-24; 35-43]과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침[5:25-34])을 하나로 간주하여 총 여덟 개의 기적들로 이 단락의 문학적 구조를 제시하고자 한다: ‘바다를 잠잠케 함’(4:23-41), ‘거라사 광인을 고침’(5:1-20), ‘야이로의 딸과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침’(5:21-43), ‘오천 명을 먹임’(6:30-44), ‘바다 위를 걸음’(6:45-52), ‘수로 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침’(7:24-30), ‘귀먹고 말 못하는 자를 고

(6:31-7:37과 8:1-30)을 다음과 같은 구조로 제시한다. William Lane, *The Gospel According to Mark: The English Text with Introduction, Exposition, and Note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74), 269.

6:31-44	무리를 먹임	8:1-9
6:45-56	바다를 건너고 도착함	8:10
7:1-23	바리새인들과의 갈등	8:11-13
7:24-30	떡에 대한 대화	8:14-21
7:31-36	치유	8:22-26
7:37	믿음의 고백	8:27-30

47) 기적 모음집이라 불리는 단락의 범위는 학자들에 따라 달리 설정되는데, 필자는 그 범위를 4:35-8:21로 한다. Fisher와 von Wahlde는 기적 모음집의 범위를 4:35-5:43로 정한다. Kathleen M. Fisher and Urban C. von Wahlde, “The miracles of Mark 4:35-5:43: Their Meaning and Function in the Gospel Framework”, *BTB* 11 (1981): 13-16. 참고, Elizabeth Struthers Malbon, “Echoes and Foreshadowings in Mark 4-8: Reading and Rereading”, *JBL* 112 (1993): 211-30.

침’(7:31-37), ‘사천 명을 먹임’(8:1-10).

총 여덟 개의 기적들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순환의 틀에 해당하는 바다와 광야의 네 개의 기적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네 개의 기적들이 남는다. 첫 번째 순환에는 거라사 광인(5:1-20)과 아이로의 딸과 혈루병 걸린 여인(5:21-43)을 고친 기적이 나오는데, 전자는 귀신 축출, 후자는 병자 치유이다. 두 번째 순환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7:24-30)과 귀먹고 말 못하는 자(7:31-37)를 고친 기적이 나오는데, 이 또한 전자는 귀신 축출이고, 후자는 병자 치유이다. 여기서 두 개의 순환 단락들 안에 나오는 기적들 사이에 평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알 수 있다. 거라사 광인을 고치는 기적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는 기적과 귀신 축출이라는 점에서, 아이로의 딸과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는 기적은 귀먹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는 기적과 병자 치유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평행을 이룬다. 필자는 두 개의 순환 단락에서 기적의 성격과 종류의 유사성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평행을 제시한다.⁴⁸⁾

48) 참고. 김득중은 필자가 제시한 순환 구조와 유사하게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바다를 잠잠케 함 (4:35-41)	→	거라사 귀신들 (5:1-20)	→	아이로의 딸과 혈루병 여 인(5:21-43)	→	오천 명을 먹임 (6:30-44)
바다 위를 걸음 (6:45-51)	→	게네사렛 병자들 (6:53-56)	→	수로보니게 여인과 그의 귀신들린 딸(7:24-30)	→	사천 명을 먹임 (8:1-9)

김득중, 『복음서의 이적 해석』(서울: 컨콜디아사, 1996), 67. 바다-광야 패턴을 제시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악테마이어(Paul J. Achtemeier)가 있다. 그는 마가복음의 이전 자료(pre-Markan source)를 가정하면서, 기적 이야기들이 연쇄적으로 하나의 묶음으로 이루어 전승되어 왔고, 이러한 유사한 기적 이야기 묶음이 두 개가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시한 구조는 다음과 같다.

바다를 잠잠케 함 (4:35-41)	→	거라사 광인 (5:1-20)	→	혈루병 걸린 여인 (5:25-34)	→	아이로의 딸 (5:21-23, 35-43)	→	오천 명을 먹임 (6:30-44, 53)
바다 위를 걸음 (6:45-51)	→	벳새다 맹인 (8:22-26)	→	수로보니게 여인 (7:24b-30)	→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7:32-37)	→	사천 명을 먹임 (8:1-10)

Paul J. Achtemeier, "Toward the Isolation of Pre-Markan Miracle Catenae," *JBL*

	자연 이적	귀신 축출	병자 치유	자연 이적	결론
첫 번째 순환 (4:34-6:44)	바다를 잠잠케 함(4:35-41)	→ 거라사 광인 (5:1-20)	→ 아이로의 딸과 혈루병 걸린 여인(5:21-43)	→ 광야에서 오천 명을 먹임(6:30-44)	배(바다) 위에서 떡(광야)에 대한 이야기 (8:13-21)
두 번째 순환 (6:45-8:10)	바다 위를 걸음 (6:45-51)	→ 수로보니게 여인과 귀신들린 딸(7:24-30)	→ 귀 먹고 말 더듬는 자(7:31-37)	→ 광야에서 사천 명을 먹임(8:1-10)	

여기서 기적은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자연 이적, 귀신 축출, 병자 치유.⁴⁹⁾ 마가는 두 개의 순환 단락 안에 세 가지 종류의 기적을 평행으로 나열시킨다. 바다 기적과 광야 기적을 각 단락의 처음과 끝에 위치시키고, 귀신 축출과 병자 치유를 그 사이에 배치시키면서 두 단락을 평행하게 만든다. 그리고 예수는 자연 이적을 통해 우주 만물을 통치하며 먹을 양식을 공급하는 주가 되고, 귀신 축출을 통해 악의 세력을 파멸하고 자유케 하시는

89 (1970), 265-91. 하지만 악테마이어는 마가복음의 내러티브 순서를 따르지 않는다. 벧새다 맹인을 고치는 사건(8:22-26)은 사천 명을 먹이는 사건(8:1-9)보다 나중에 나오지만, 두 번째 순환 단락에서 바다 위를 걸은 사건(6:45-51) 다음에 위치시킨다. 마가가 기존에 전승되어 내려오는 순서, 즉 악테마이어가 주장한 두 개의 기적 이야기 묶음에 있는 순서를 마가가 자신의 내러티브에 맞게 편집하여 바꾸었다는 것이다. 그는 두 번째 바다 이야기에서 벧새다로 향했던 배(6:54)가 이상하게 계넣사렛(6:53)에 도착했고, 이에 반해 마지막 바다 이야기에서 예수와 제자들을 태운 배가 벧새다(8:22)에 도착했다는 점을 근거로 마가 이전의 자료에서는 두 번째 바다 이야기 다음에 벧새다 맹인 이야기가 연속되었다고 주장한다. 악테마이어는 마가의 편집 이전의 전승 자료를 가정하고 위와 같은 두 개의 순환 단락을 통해 평행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벧새다로 향했던 배가 풍랑을 만나 계넣사렛에 도착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Robert A. Guelich, *Mark 1-8:26* (WBC 34A; Nashville: Thomas Nelson, 1989), 356; Morna D. Hooker,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Mark* (BNTC; Peabody: Hendrickson, 1991), 171. 그가 제시한 두 개의 순환 단락의 문제점은 ‘침 뱉음’의 치유 방법을 평행의 요소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 두 개의 기적들(벧새다 맹인[8:22-26]과 귀 먹고 말 더듬는 자[7:32-37])은 두 번째 순환 단락에 모두 위치함으로써 평행을 이루지 못한다. Robert M. Fowler, *Loaves and Fishes: The Function of the Feeding Stories in the Gospel of Mark* (SBLDS; Chico: Scholars Press, 1981), 29.

49) 김득중, 『복음서 신학』 (서울: 컨콜디아사, 1985), 125-26.

주가 되며, 병자 치유를 통해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주가 된다. 그렇다면 마가가 이처럼 반복적인 사건들을 두 번에 걸쳐 나열하면서 순환 구조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인가?⁵⁰⁾ 아마도 마가는 유사한 유형의 기적들을 두 개의 순환 단락을 통해 반복해서 보여줌으로써 예수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자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즉, 첫 번째 순환 단락은 유대인을 향한 기적으로, 두 번째 순환 단락은 이방인을 향한 기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유사한 기적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행해졌다는 사실은 예수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세주가 됨을 말해준다.

첫 번째 순환 단락이 유대인을 향해 있다는 것은 유대인의 전형인 ‘회당장 아이로’가 등장한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오천 명을 먹고 열두 바구니가 남은 기적 또한 유대인을 대상으로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다섯과 열둘이라는 숫자는 모세 오경과 열두 지파를 가리키는 유대적 숫자이고, 바구니로 번역된 헬라이어 ‘코피노스’(κόφινος)는 유대인이 사용하는 도구라는 점 때문이다.⁵¹⁾ 반면에 두 번째 순환 단락이 이방인을 향해 있다는 것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하고 그녀가 이방인임을 두 번 언급하며 강조한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Ελληνίς, Συροφονίχισσα)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사천 명일 먹고 일곱 광주리가 남은 기적 또한 이방인을 대상으로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넷과 일곱이라는 숫자가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온 세상과 가나안 일곱 족속을 반영하는 이방적 숫자이고, 광주리로 번역된 헬라이어 ‘스퀴리스’(σφυρίς)는 이방인(특히 로마인)이 사용하는 도구라는 점 때문이다.⁵²⁾

50) 마태는 마가처럼 두 번에 걸친 반복적인 순환 단락을 모두 소개하지만, 누가는 두 번째 순환 단락을 완전히 생략한다. 아마도 누가는 역사가의 관점에서 글을 쓰는 경향 때문에 반복적인 내용을 생략했을 수 있다.

51) 김득중, 『복음서의 이적 해석』, 116-17; Guelich, *Mark 1-8:26*, 343-44; James A. Brooks, *Mark* (NAC;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1), 109. Boring, *Mark*, 187.

52) 김득중, 『복음서의 이적 해석』, 116-17. Guelich, *Mark 1-8:26*, 407-8; Brooks,

그러나 각각의 순환 단락이 완전히 구분되어 첫 번째 순환에서는 유대인에게만 기적이 행해지고, 두 번째 순환에서는 이방인에게만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말본(Elizabeth Struthers Malbon)은 다음과 같은 ‘바다-광야’의 평행 구조를 통해 각 단락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보여준다.⁵³⁾

바다를 잠잠케 함	바다 위를 걸음
거라사 광인을 고침(이방인, 한 명)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침(유대인, 다수)
아이로의 딸과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침(유대인, 두 명)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과 데가볼리에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침(이방인, 두 명)
오천 명을 먹임(유대인들)	사천 명을 먹임(이방인들)

첫 번째 순환 단락에서는 유대인이 주류를 이룬다. 그러나 처음 나오는 기적에서 거라사에 거주하는 귀신들린 이방인이 중심인물로 등장한다. 두 번째 순환 단락에서는 이방인이 주류를 이룬다. 하지만 게네사렛에서 유대인 병자들이 등장한다. 게네세렛은 갈릴리 바다 서쪽에 위치한 유대인의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 몰려든 병자들은 유대인들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이 장면에서 병자들은 단지 예수로부터 치유받기 위해 몰려든 것이지 내러티브의 중심인물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본문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필자가 제시한 순환 구조는 첫 번째 순환 단락에 이방인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필자는 첫 번째 순환 단락이 유대인을 향한 예수의 사역이고 두 번째 순환 단락이 이방인을 향한 예수의 사역으로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다는 논지를 펴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문제를 교차대칭 구조를 통해 해결해보고자 한다. 여기서 두 순환 단락에 나오는 예수의 지리적 이동 경로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Mark, 126; 오천 명과 사천 명을 먹인 급식 이적이 각각 유대인과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설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잘 정리된 Boring, *Mark*, 220-221을 참조하라.
53) Malbon, “Echoes and Foreshadowings in Mark 4-8”, 219-22.

먼저 예수님의 지리적 이동 경로에 대해 살펴보겠다. 갈릴리 후기 사역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동과 서로 이동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한다. 예수님의 이동 경로에는 일정한 패턴이 나타난다.⁵⁴⁾ 두 개의 순환 단락에서 예수님의 사역 경로가 ‘바닷가/육지/바닷가’ 패턴을 보인다.⁵⁵⁾ 첫 번째 순환 단락(4:35-6:44)에서는 바닷가(4:35-5:21, 바다를 건너고 바닷가에서 치유함)/육지(6:1-30, 육로 여행)/바닷가(6:31-44, 바다에 인접한 광야에서 오천 명을 먹이심) 패턴이, 두 번째 순환 단락(6:45-8:10)에서도 바닷가(6:45-6:56, 바다를 건너고 바닷가에서 치유함; 7:1-23, 정결과 부정에 대한 가르침)/육지(7:24-37, 육로 여행)/바닷가(8:1-10, 바다에 인접한 광야에서 사천 명을 먹이심) 패턴이 나타난다. 앞서 두 순환 단락들 사이에 기적들의 평행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에서도 두 순환 단락들 사이에 지리적 평행이 나타난다. 필자는 갈릴리 후기 사역의 전체 단락을 총괄하면서, 다음과 같은 지리적 차원에서 평행을 이루는 순환 구조를 제시한다.⁵⁶⁾

첫 번째 순환	두 번째 순환
갈릴리와 그 근교의 예수님의 사역 (4:35-6:44)	갈릴리를 넘어선 예수님의 확장된 사역 (6:45-8:10)
바다(서에서 동): 바다를 잠잠케 함(4:23-41) 이방인 지역: 거라사 광인을 고침(5:1-20)	바다(서에서 동): 바다 위를 걸음(6:45-52; 치유 사역에 대한 요약, 53-66) 유대인 지역: 선교와 관련된 말씀과 에피소드: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에 대한 가르침(7:1-23)

54) 피터슨(Norman R. Petersen)은 마가복음 4:1-8:26에서 ‘바닷가/바다/바닷가’ 패턴을 보여주는 세 개의 순환 단락(4:1-5:20; 6:30-56; 8:1-26)과 각 단락 사이에 삽입된 두 개의 막간(5:21-29; 7:1-37)이 있는 구조를 제시한다. 이 패턴과 관련하여, 첫 번째 순환 단락인 4:1-5:20에서 4:1-31은 바닷가, 4:35-41은 바다, 5:1-20은 바닷가로 나온다. 이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순환 단락인 6:30-56에서는 6:30-44/6:45-52/6:53-56으로, 세 번째 순환 단락인 8:1-26에서는 8:1-12/8:13-21/8:22-26으로 동일한 패턴이 나타난다. Norman R. Petersen, “The Composition of Mark 4:1-8:26” *HTR* 73 (1980): 188. 필자는 피터슨과는 달리 4:35-8:10에서 두 개의 순환 단락이 바닷가/육지/바닷가의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제시한다.

55) Kim, *Jesus and the Missional Movement in Galilee*, 143-45.

56) Kim, *Jesus and the Missional Movement in Galilee*, 127.

유대인 지역: 아이로의 딸과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침(5:21-43) 유대인 지역: 선교와 관련된 말씀과 에피소드(6:1-30): 나사렛에서 배척받음(6:1-6a); 열두 제자 파송(6b-13, 30); 세례 요한의 처형(6:14-29) 광야(유대인 지역): 오천 명을 먹임(6:30-44)	이방인 지역: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침(7:24-30) 이방인 지역: 귀먹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침(7:31-37) 광야(이방인 지역): 사천 명을 먹임(8:1-10)
결론	
1.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8:11-12) 2. 바다(동에서 서): 배 위에서 떡의 의미에 대한 가르침(8:13-21)	

필자는 첫 번째 순환 단락이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단락 안에 있는 사건들이 모두 유대인 지역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니다. 거라사 광인을 고친 장소는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앞으로 펼쳐질 두 번째 순환 단락을 위한 예비적 사역으로 이해될 수 있다. 거라사 광인은 자신을 고쳐준 예수와 동행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는 가족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일어난 기적을 알리라고 했고, 그는 데가볼리에 가서 예수의 행한 일을 전한다(5:18-20). 두 번째 순환 단락은 이방인 지역에 대한 사역을 보여주는데, 예수는 갈릴리를 떠나 두로와 시돈을 거쳐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한 후 갈릴리 바다 동쪽에 이르는(7:23, 31) 광대한 이방인 지역의 순회 여행을 한다. 거라사 광인은 예수의 두 번째 순환 단락에 나오는 이방 사역을 위한 예비적 역할을 한다.⁵⁷⁾ 거라사 광인이 첫 번째 순환 단락에서 데가볼리에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두 번째 순환 단락에서 예수가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할 때 그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이미 알고 만나려고 몰려들었을 것이다. 따라서 비록 첫 번째 순환 단락에서 거라사 광인의 치유는 이방인 사역으로 볼 수 있지만, 예수가 그를 집으로 돌려보냄으로써 데가볼리에

57) 웨팔드(Eric K. Wefald)는 거라사 광인이 예수의 이방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보냄 받은 예비자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마치 세례 요한이 유대인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듯이, 거라사 광인도 그와 같은 역할을 이방인에게 했다는 것이다. Eric K. Wefald, "The Separate Gentile Mission in Mark: A Narrative Explanation of Markan Geography, the Two Feeding Accounts and Exorcisms", *JSNT* 60 (1995): 3-26.

예수에 대한 소문을 전했다는 측면에서 이방인 사역에 대한 전조 기능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순환 단락도 모두 이방인 지역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니다. 바다 위를 걷는 기적 이후에 예수는 유대인 지역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정결 논쟁을 벌이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준다(7:1-23). 그리고 이때 예수는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7:19)고 선언(이방 선교의 신학적 근거가 됨)하신 후에 이방인 지역인 두로를 향해 떠난다. 이처럼 두 번째 순환 단락에서도 유대인 지역에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예비적 사역을 보여준다. 따라서 두 순환 단락 모두 전적으로 유대인 지역에서는 유대인 사역만을, 이방인 지역에서는 이방인 사역만을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 지역에서 이방인을 위한 예비적 사역을, 이방인 지역에서 유대인 사역을 위한 예비적 사역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리적 측면과 예비적 사역이라는 차원에서 두 순환 단락은 대조적인 평행을 이루며, 첫 번째 순환은 유대인 선교를 위한 사역으로, 두 번째 순환은 이방인 선교를 위한 사역으로 이해될 수 있다.

앞서 필자는 두 개의 ‘바다-광야’ 순환 단락 안에 있는 여덟 개의 기적들이 이 종류(자연 이적, 귀신 축출, 병자 치유)에 따라 평행을 이루고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기적들이 평행을 이룬다고 말한 것이지 갈릴리 후기 사역의 전체 구조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이 기적들을 포함하여 갈릴리 후기 사역의 전체(결론 부분 제외)의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교차대칭 형태가 발견된다.⁵⁸⁾

[바다를 잠잠케 함(4:35-41)]

A. 데가볼리 지방에 인접한 갈릴리 바닷가에서 거라사 광인(5:1-20)

B. 야이로의 딸과 혈루병 걸린 여인(5:21-43)

C. 유대인 선교를 위한 예수의 말씀(몇 가지 에피소드 포함됨: 6:1-30)

[광야에서 오천 명을 먹임(6:31-44)]

58) Kim, *Jesus and the Missional Movement in Galilee*, 150.

[바다 위를 걸음(6:45-52); 치유 사역 요약(6:53-56)]

C'. 이방인 선교를 함의하고 있는 예수 말씀(7:1-23)

B'.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7:24-30)

A'. 데가볼리 지방 통과 후 갈릴리 바닷가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7:31-37)

[광야에서 사천 명을 먹임(8:1-10)]

먼저, 두 개의 ‘바다-광야’가 이야기는 전체 구조를 이루는 틀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A와 A’ 단락은 데가볼리라는 지역적 측면에서 연결된다.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고침받은 광인은 데가볼리 지방에 예수의 기적을 알렸고, 예수는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 동쪽(이방인 지역)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친다. 예수의 사역의 시작과 끝이 모두 데가볼리라는 점에서 연관성이 있다.⁵⁹⁾ B와 B’는 지리적 측면에서 공통점이 명확하게 발견되지는 않지만, 아이로의 딸과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고쳐진 장소가 모두 집이라는 점에서 연결점을 찾을 수 있다.⁶⁰⁾ 또한 여인과 딸이 치유 사건의 중심인물로 제시된다. 마지막으로 C와 C’는 지리적 측면에서 유사성을 발견하기 어렵지만, 두 순환 구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교라는 주제에 있어서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C는 C’는 모두 선교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주제를 가지며, 전자는 유대인을, 후자는 이방인을 향해 있다는 점에서 대칭을 이룬다.⁶¹⁾ C에서 열두 제자 파송(6:6b-13, 30) 안에 세례 요한의 죽음(6:14-29)이 삽입 기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제자들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세례 요한과 같은 순교의 각오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⁶²⁾ C’에서 정결 논쟁 후에 모든 음식의 깨끗함을 선언한 이유는 이방 선교의 정당성을 말해주

59) Kim, *Jesus and the Missional Movement in Galilee*, 150.

60) 병 고침 받은 자들이 모두 여인들(혈루병 걸린 여인과 아이로의 딸,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과 그녀의 딸)이라는 것과 믿음을 통한 치유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Kim, *Jesus and the Missional Movement in Galilee*, 150-53.

61) Kim, *Jesus and the Missional Movement in Galilee*, 153.

62) Edwards, *The Gospel According to Mark*, 189.

기 위한 것이다.

예수의 갈릴리 후기 사역에는 다양한 형태의 구조가 발견된다. 나이린크(Frans Neirynck)가 말하듯이, 마가의 내러티브에는 유사한 이야기가 두 번에 걸쳐 나오는 ‘이중성’(duality)이 분명히 나타나며,⁶³⁾ 이는 반복이라는 문학 기법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중성의 특성을 가진 반복은 다양한 문학 기법의 복합적 사용을 통해 내러티브의 구조를 형성한다. 따라서 마가의 내러티브 구조를 하나의 문학 기법을 통해 이해하기보다는 다양한 문학 기법이 어떤 방식으로 혼용되어 구조를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5. 반복에 기초한 문학기법들의 복합적 사용을 통한 구조 이해와 메시지 전달

지금까지 필자는 예수의 갈릴리 후기 사역의 단락 구조를 반복에 기초한 다양한 문학 기법들로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단락의 구조를 이해할 때 하나의 문학 기법으로 일관되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필자는 서로 다른 문학 기법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어도 일관성 있게 구조를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법을 통해 본문에 대해서 더욱 풍성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왜냐하면 비록 다양한 문학 기법들이 혼용되고 있지만, 마가복음의 내러티브가 이중성이라는 반복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의 구조를 통일성 있게 파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본문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도출시킬 수 있게 된다.

필자가 제시한 갈릴리 후기 사역의 최종적인 구조는 지리적 차원에서 이방인 지역과 유대인 지역으로 구분하여 두 개의 순환 단락과 결론 단락을 보여주는 도표이다. 이 구조는 필자가 앞서 언급한 반복의 변형된 형태인 핵심어,

63) Frans Neirynck, *Duality in Mark: Contributions to the Study of the Markan Redaction*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1972), 77.

삽입, 틀, 양식 장면, 전조와 반향, 교차대칭, 평행, 두 단계(또는 세 단계) 진보 등의 여덟 가지 문학 기법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사용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갈릴리 후기 사역에서 두 개의 순환 단락의 시작과 끝은 핵심어, 양식 장면, 평행, 틀의 문학 기법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었다. 두 개의 바다 기적은 배 모티프를 공유하며 배라는 핵심어로 연결되어 있다. 바다의 사나운 풍랑 가운데 죽음의 위협에 놓인 제자들이 구출되는 두 사건은 양식 장면 기법이 사용되었다. 두 개의 광야 기적 또한 떡 모티프를 공유하며 떡이라는 핵심어로 연결되어 있다. 광야 가운데서 굶주림에 처한 무리들을 먹이는 두 개의 급식 기적에는 양식 장면 기법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틀 기법들이 사용될 때 바다에서 바다, 그리고 광야에서 광야의 구조가 아닌, 바다에서 광야, 그리고 바다에서 광야로 이어지는 틀이 더 적절하다. 왜냐하면 두 개의 바다 사건 안에 하나의 광야 사건이 포함되어 있어서 바다-바다와 광야-광야로 이어지는 패턴으로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번의 반복적인 바다-광야 패턴이 틀로 사용될 경우 평행을 이룰 수 있다. 두 순환 단락 모두 바다에서 시작하여 광야로 끝나기 때문에, 각각의 순환 단락의 시작은 바다로 평행을 이루고, 끝은 광야로 평행을 이룬다.

결론 단락은 핵심어, 전조와 반향, 두 단계(또는 세 단계) 진보의 문학 기법들이 사용된다. 이 단락에서 예수와 제자들은 바다에서 배를 타고 광야에서 있었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바다와 광야 사건에서 배와 떡이 핵심어였던 것처럼, 이 장면에서도 배와 떡이 나오면서 앞선 사건들과 핵심어로 연결된다. 여기서 전조와 반향 기법이 나오는데, 예수가 광야에서 오천 명과 사천 명을 먹인 사건을 언급하며 제자들의 무지를 책망하는 장면은 직접적인 반향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단락을 결론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바다와 광야 사건들이 세 단계 진보 기법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합되기 때문이다. 두 번의 바다 사건에서 예수가 누구인지와 제자들의 무지가 나온다. 두 번의 광야 사건에서도 예수의 정체와 제자들의 부족한 믿음이 드러난다. 바다와 광야의 반복된 사건들이 두 단계로 진행되다가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

서 이 둘이 결합되어 기독교론과 제자도를 보여준다. 배에서 자신의 정체를 암시적으로 알리는 예수는 떡에 대한 가르침을 하면서 오천 명과 사천 명을 먹인 사건을 제자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질책한다. 이러한 문학 기법들의 결합과 절묘한 조화는 단락 전체의 주제를 두드러지게 각인시키고 기독교론과 제자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져다준다.

두 개의 순환 단락 사이에는 서로 상충되어 보이는 문학 기법이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필자는 두 개의 순환 단락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로 첫 번째 순환 단락은 유대인을 위한 사역으로, 두 번째 순환 단락은 이방인을 위한 사역으로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는 평행과 교차대칭이라는 다소 상반되는 문학 기법이 사용된다. 이 두 문학 기법은 반복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배열의 측면에서는 서로 다르다. 하지만 상반된 두 문학 기법은 함께 나타나고, 필자는 이것을 예수의 지리적 이동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먼저, 두 개의 순환 단락 사이에는 평행 기법이 사용된다. 예수의 갈릴리 후기 사역에는 총 여덟 개(아홉 개이지만 삼입 기법이 사용된 두 개의 기적을 하나로 봄)의 기적들이 나오고, 바다-광이라는 두 개의 순환 단락에 각각 네 개씩 있다. 그리고 각각의 순환 단락에 있는 기적들은 ‘자연 이적-귀신 축출-병자 치유-자연 이적’이란 패턴으로 서로 평행을 이룬다. 하지만 첫 번째 순환 단락에서 귀신 축출은 거라사인의 지방에 사는 이방인 광인에게 행해졌다. 이는 첫 번째 순환 단락이 전적으로 유대인을 위한 사역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수의 사역 장소와 이동 경로를 대조적 평행과 교차대칭 기법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첫 번째 순환 단락은 유대인 사역을 위해 유대인 지역에서 행해지지만, 이 단락에서 바다 기적 이후의 처음 사건은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여기서 일어난 이방인 사역은 두 번째 순환 사역을 위한 예비적 사건으로 역할을 한다. 이와 유사하게, 두 번째 순환 단락은 이방인 사역을 위해 이방인 지역에서 행해지지만,

이 단락에서도 바다 기적 이후의 처음 사건은 유대인 지역에서 일어난다. 유대 종교지도자들과의 정결 논쟁 후, 예수는 이방 선교를 위해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선언하시는 예비적 사역을 한다. 이러한 지역적 대조는 평행으로 나타난다. 즉, 첫 번째 순환 사역은 ‘이방인 지역—유대인 지역—유대인 지역—유대인 지역’, 두 번째 순환 사역은 ‘유대인 지역—이방인 지역—이방인 지역—이방인 지역’의 순서를 보이며 대조적인 평행을 이룬다. 하지만 이러한 대조적 평행과 더불어 교차대칭의 구조가 나오면서 두 순환 단락의 지리적 이고 내용적인 대칭이 나타난다. 바다—광야의 틀을 제외하고 거라사 광인을 고친 사건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사건과 데가볼리라는 지역으로 교차대칭을 이룬다. 아이로의 딸과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친 사건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친 사건과 집이라는 장소와 여인과 딸이라는 인물의 유사성으로 교차대칭을 이룬다. 그리고 열두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유대인 선교를 위한 예수의 말씀과 정결 논쟁 장면을 중심으로 이방인 선교를 위한 예수의 선언은 선교라는 중심 주제로 교차대칭을 이룬다. 평행과 교차대칭의 복합적 사용이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역과 주제라는 이중적 측면에서 동시에 고려하면 서로 조화될 수 있다.

필자는 반복에 기초한 다양한 문학 기법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어 구조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단락의 구조를 일관성 있게 해석한다는 의도로 단지 하나의 문학 기법만을 사용하는 것은 단락 안의 다양한 내용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는데 한계를 가져다준다. 물론 완전히 충돌되는 문학 기법들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시도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유사한 성격의 다양한 문학 기법들을 서로 조화롭게 사용하여 내러티브의 구조를 통일성 있게 이해한다면, 단락 내의 여러 본문을 일관성을 가지고 더욱 명확하고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다.

6. 결론

본문에 대한 구조 분석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구조적 이해는 본문의 의미와 주제를 파악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본문의 구조를 하나의 문학 기법으로 분석하여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구조를 일관성 있게 보여주는 장점이 있지만, 본문의 메시지를 생동감 있게 전달하지 못하고 단편적이고 획일적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단점이 있다. 필자는 본문의 단락을 결정하고 구조를 분석할 때, 다양한 문학 기법들이 어떤 방식으로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상호작용하면서 단락의 구조를 형성하는지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논문은 본문 구조를 하나의 문학 기법이 아닌 다양한 문학 기법들의 복합적 사용과 상호 작용을 통해 이해하고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단락 안의 본문의 내용들이 다양한 문학 기법들의 복합적 사용이 어떻게 주제를 드러내며, 역동적이고 효과적이며 강력하게 메시지가 전달되는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다양한 문학 기법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이 문학 기법들 사이에는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필자는 마가복음의 내러티브에서 반복이라는 본질적 특성을 공유한 문학 기법들이 어떤 방식으로 복합적으로 사용되면서 예수의 갈릴리 후기 사역 단락의 구조를 통일성 있게 이루는지 살펴보았다.

필자는 갈릴리 후기 사역의 전체 구조를 두 개의 순환 단락과 하나의 결론 단락으로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여덟 가지 문학 기법들—핵심어, 삽입, 틀, 양식 장면, 전조와 반향, 교차대칭, 평행, 두 단계(또는 세 단계) 진보—은 복합적으로 사용되면서 역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두 개의 순환 단락의 시작과 끝은 핵심어, 양식 장면, 평행, 틀의 문학 기법들이, 결론 단락은 핵심어, 전조와 반향, 두 단계(또는 세 단계) 진보의 문학 기법들이 사용된다. 그리고 두 개의 순환 단락 사이에는 상충되어 보이는 평행과

교차대칭 기법이 사용된다. 하지만 이 두 기법은 예수의 사역 장소와 이동 경로의 측면에서 서로 보완하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순환 구조의 의미를 밝혀준다.

예수의 갈릴리 후기 사역은 이러한 문학 기법들의 복합적 사용을 통해, 예수는 우주 만물의 통치자요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악의 세력으로부터 해방하고, 질병으로부터 치유하며, 굶주림으로부터 먹이는 구세주이다. 여기서 두 개의 순환 단락이 반복적인 형태로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예수는 첫 번째 순환 단락에서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방인을 중심으로 유사한 기적들을 행함으로, 예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자 되심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제자들은 예수가 행한 기적을 반복적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한다. 제자들의 몰이해는 마지막 결론 단락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두 개의 순환 단락의 틀을 형성하는 배와 떡의 모티프가 결론 단락에 함께 나오면서 기독교론과 제자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예수는 배에서 떡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행한 일을 제자들에게 상기시키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무지를 책망한다. 다양한 문학적 기법들의 복합적 사용은 마가복음의 구조를 다양한 각도에서 통일성 있게 파악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마가복음의 내러티브는 역동적이며 풍성하게 이해되며, 기독교론과 제자도의 주제는 강조와 동시에 효과적으로 전달된다.

<주제어>

문학 기법, 복합적 사용, 반복, 순환 패턴, 구조 분석

<Keywords>

literary technique, mixed-use, repetition, cyclic pattern, structural analysis

참고문헌

- 김득중, 『복음서의 이적 해석』, 서울: 컨콜디아사, 1996.
- 김선옥, “마가복음의 길 모티프의 문학적 기능과 신학적 의의와 이사야의 새 출애굽 반영,” 『신약연구』 18 (2019), 42-78.
- _____, “마가복음의 배 모티프의 문학적 기능과 신학적 의의—문학적 접근 방법을 통한 막 4:35-8:21 연구,” 『신약논단』 26 (2019), 35-78.
- 박노식, “마가복음의 문학적 구성과 모티프: 마가복음 1:1-3:6을 중심으로,” 『신약논단』 15 (2008), 895-930.
- Achtemeier, Paul J., “Toward the Isolation of Pre-Markan Miracle Catenae,”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89 (1970), 265-91.
- Anderson, Janice Capel, “Double and Triple Stories, the Implied Reader, and Redundancy in Matthew,” *Semeia* 31 (1985), 71-89.
- Alter, Robert,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Rev. ed., New York: Basic Books, 2011.
- Bauer, David R., *The Structure of Matthew's Gospel: A Study in Literary Design*,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Supplement Series 31, Sheffield: Almond Press, 1988.
- Best, Ernest, “Mark's Narrative Technique,” *Journal for the Study of New Testament* 37 (1989), 43-58.
- Boring, M. Eugene, *Mark: A Commentary*, The New Testament Library,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2006.
- Brooks, James A., *Mark*, The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1.
- Deppe, Dean B., *The Theological Intentions of Mark's Literary Devices: Markan Intercalations, Frames, Allusionary Repetitions, Narrative Surprises, and Three Types of Mirroring*, Eugene: Wipf and Stock, 2015.
- Dewey, Joanna, “Mark as Interwoven Tapestry: Forecasts and Echoes for a Listening Audienc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53 (1991),

221-36.

_____, *Markan Public Debate: Literary Technique, Concentric Structure, and Theology in Mark 2:1-3:6*,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Dissertation Series 48, Chico: Scholars Press, 1980.

_____, "The Literacy Structure of the Controversy Stories in Mark 2:1-3:6,"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92 (1973), 394-401.

Edwards, James R., *The Gospel According to Mark*, Pillar New Testament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2002.

Fisher, Kathleen M. and Urban C. von Wahlde, "The miracles of Mark 4:35-5:43: Their Meaning and Function in the Gospel Framework," *Biblical Theology Bulletin* 11 (1981), 13-16.

Fowler, Robert M., *Let the Reader Understand: Reader-Response Criticism and the Gospel of Mark*, Minneapolis: Fortress, 1991.

_____, *Loaves and Fishes: The Function of the Feeding Stories in the Gospel of Mark*,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Dissertation Series 54, Chico: Scholars Press, 1981.

Guelich, Robert A., *Mark 1-8:26*, Word Biblical Commentary 34A,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89.

Hooker, Morna D.,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Mark*, Black's New Testament Commentaries, Peabody: Hendrickson, 1991.

Kelber, Werner H., *The Kingdom in Mark: A New Place and a New Time*, Philadelphia: Fortress, 1974.

Kim, Sun Wook, *Jesus and the Missional Movement in Galilee: Markan Spatial Presentation and Its Hermeneutical Significance*, Eugene: Pickwick, 2019.

Lane, William L., *The Gospel According to Mark: The English Text with Introduction, Exposition, and Notes*,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74.

Malbon, Elizabeth Struthers, "Echoes and Foreshadowings in Mark 4-8:

- Reading and Rereading,”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12 (1993), 211-30.
- , “Narrative Criticism: How Does the Story Mean?” Pages 29-57 in *Mark & Method: New Approaches in Biblical Studies*, Edited by Janice Capel Anderson and Stephen D. Moore, 2d ed.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2.
- Neirynck, Frans, *Duality in Mark: Contributions to the Study of the Markan Redaction*,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1972.
- Petersen, Norman R., “The Composition of Mark 4:1-8:26,” *Harvard Theological Review* 73 (1980), 185-217.
- Powell, Mark Allan, *What Is Narrative Criticism? Guides to Biblical Scholarship*, Minneapolis: Fortress, 1990.
- Resseguie, James L., *Narrative Criticism of the New Testament: An Introduction*,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5.
- Stein, Robert H., “The Proper Methodology for Ascertaining a Markan Redaction History,” *Novum Testamentum* 13 (1971), 181-98.
- Tannehill, Robert C., *The Narrative Unity of Luke-Acts: A Literary Interpretation, I,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Vol. 1, Philadelphia: Fortress, 1986.
- , *The Narrative Unity of Luke-Acts: A Literary Interpretation, II, The Acts of the Apostles*, Vol. 2, Philadelphia: Fortress, 1990.
- Wefald, Eric K., “The Separate Gentile Mission in Mark: A Narrative Explanation of Markan Geography, the Two Feeding Accounts and Exorcisms,”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60 (1995), 3-26.
- Williams, Joel F., *Other Followers of Jesus: Minor Characters as Major Figures in Mark’s Gospel*,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Supplement Series* 102, Sheffield: JSOT Press, 1994.
- Wright, George Al, Jr., “Markan Intercalations: A Study in the Plot of the Gospel,” Ph.D. diss.,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1985.

<초록>

마가복음에 나타난 문학 기법들의 복합적 사용

- 구조 분석과 메시지 전달의 의의 -

김선욱

(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

본 논문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다양한 문학 기법들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사용되어 본문의 구조를 이루고 신학적 주제를 전달하는지를 연구한다. 일반적으로 본문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하나의 문학 기법만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본문을 일관성 있게 이해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복잡하게 얽혀진 큰 단락의 본문을 연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별히 내러티브의 경우 다양한 문학 기법들이 본문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다. 필자는 이러한 문학 기법들이 본문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상호 작용하고 결합하여 구조를 이루고 메시지를 전달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마가복음에서 반복에 기초한 문학 기법들을 소개하고, 예수의 갈릴리 후기 사역(4:35-8:21)의 단락을 예를 통해 다양한 문학 기법들이 어떤 방식으로 복합적으로 사용되어 통일성 있는 구조를 형성하며, 효과적이고 역동적으로 주제를 전달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Abstract>

The Mixed-Use of Mark's Literary Techniques: Structural Analysis and Message Delivery

Sun Wook Kim
(Ezra Bible Institute for Graduate Studies)

This study has the purpose of studying how to make a structure and deliver theological messages through the mixed-use of diverse literary techniques in Mark. For investigating a text structure, generally, there is a tendency to use one literary technique. This may have an advantage to understand a text with consistency, but there exists a limitation when a large and complex passage is examined. In this study, I will examine how diverse literary techniques are interacted and combined to make a structure and deliver messages in a passage. To this end, first, I will introduce several literary techniques based on repetition in Mark. Next, in a case study, I will explore the passage of Jesus later Galilean ministry (4:35-8:21) and then demonstrate how various literary techniques are combined to form a unified structure. Finally, I will present how this structure may deliver the theological messages, especially Christology and discipleship, effectively and dynamically in a narrative.